

“300억 부자야” 수감 중에도 감방 동기·변호사 등친 사기꾼

“OO기업 알지? 거기 실제 사주가 나야.”

“홍콩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에 300억원가량 잔고가 있어.”

A(52)씨는 같은 방을 쓰는 B씨에게 자신을 증권사 최연소 지점장을 거쳐 경영전문대학원(MBA) 석사 과정을 거친 재력가라고 소개했다. 큰 부를 일군 여러 기업을 인수한 실질적인 사주라면서 재력을 뽐냈다.

주가 조작으로 큰 돈을 벌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2021년 1월께 같은 방에 수감 중인 B씨에게 모 법인에 관련된 기사와 주주 현황 등이 담긴 기업분석 보고서 등을 건네 보여줬다.

그러면서 “법인 소유 건물과 호텔 사이에 지하도가 뚫려 있다. 소유권 분쟁만 마무리되면 법인이 카지노를 활성화 시키고 다른 카지노 운영업체와 합병까지 할 것”이라며 자신이 갖고 있는 법인 주식 매입을 권유했다.

주식을 미리 보유하면 합병 과정에서

“증권사 지점장 출신, 주가조작으로 재력이 됐다” 속여 수형 동기 상대 투자 사기... 접견 변호사도 속아 결혼 학력·재력 모두 거짓... “죄질 나빠” 징역 6년 중형 선고

지분 전환 비율로 따지면 6~10배 가량 주가가 뛰었다고 했다. 법인 주식 1주당 1만원에 6만5000주를 팔겠다는 제안에 B씨는 6억5000만원을 A씨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했다.

A씨는 자신을 접견하러 온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잘 나가는 코스닥 상장 회사 대표들이 우발 채무 또는 매출 채권을 만들어 회사 이익 잉여금을 빼돌릴 수 있다. 투자하면 두 달 안에 6배를 번다”며 특정 회사 투자를 꼬드겼다. A씨는 자신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송금받아 돈만 챙겼다.

그러나 A씨가 말한 학력, 증권사 근무 경력, 재력 등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심지어 기업 사주 또는 인수합병 전문가 행세를 하고자 자신의 접견 변호사

C씨의 환심을 얻어 실제 혼인신고까지 했다. 뒤늦게 거짓임을 안 변호사의 이혼 청구소송으로 혼인 관계는 끝났다.

그러나 A씨는 다른 수형인들에게 ‘혼인한 변호사 C씨와의 사이에 10살 난 딸이 있다’, ‘접견 올 때마다 구치소 측 배려로 애정행각을 한다’ 등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주가 조작으로 수감된 것처럼 속이려고 타인의 공소장 허가 변경신청서에 자신의 이름을 바꿔 넣어 변호사에게 행세하기도 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사기·위조공문서 행사·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학력·재력 등을 과시하

며 각종 투자 사기 행각으로 다른 수형인 B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10억원을 가로챘고, 위조 공문서를 행사하거나 전처 C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한 차례 형집행 종료로 출소했다가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재판부는 “동종 사기 범죄로 수형 생활 중인데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 사기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 또 피해자 C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사기 범행에 활용하며 C씨에게 지속적으로 고통도 가했다”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변명과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개선의 정(정우치는 태도)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라고는 고차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다는 것과 일부 범행을 자백했을 뿐이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일제강제노역 피해 정신영 할머니 광복 80년 만에 나고야 방문

강제노역 소송 지원 단체·투병 중 대표 면담 7일 도난카이 대지진 희생자 추모식 참석도

일제강점기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강제동원돼 모진 고역을 지른 정신영(95) 할머니가 광복 80년 만에 나고야를 다시 찾는다.

4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일제강제노역 피해자인 정 할머니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강제징용 현장이었던 일본 나고야를 방문한다. 1945년 10월께 고향 전남 나주로 돌아온 이후 80년 만이다.

정 할머니는 나고야에서 근로정신대 관련 소송을 두고 있는 ‘나고야소송지원회’ 회원들과 투병중인 다카하시 마코토 소송지원회 대표를 만날 예정이다.

또 1944년 나고야 도난카이 대지진으로 숨진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7일 열리는 도난카이 지진 81주기 희생자 추도식에도 참석한다.

1930년 나주에서 태어난 정 할머니는 1944년 나주대정국민학교 졸업 직후인 그해 5월 만 14세 나이에 ‘일본에 가면 좋은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밥도 잘 준다’는 말에 속아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갔다.

강제노역 현장에 동원돼 착취당하던 중에는 도난카이 대지진을 겪어 고향에서 함께 끌려온 친구 6명이 숨지는 비극을 겪기도 했다.

정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노역 피해자들은 1945년 도야마 미쓰비시 공장

에서 일하던 중 광복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 할머니는 가족들의 장래에 지장이 될까 싶어 징용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했다.

이후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일본으로부터 사죄를 받기 위해 2020년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으나 미쓰비시 측이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등 해방을 놓으면서 판결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 2022년에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일본연금기구가 정 할머니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명목으로 고작 931원(99엔)을 송금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기도 했다.

회폐 가치 변동을 보전하지 않고 당시 기준 77년 전 액면가만 지급하면서 당시 ‘악의적인 모욕’, ‘고령의 피해자에 대한 우롱’ 등의 성토가 잇따랐다.

정 할머니는 손해배상 소송 시작 4년여 만인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미쓰비시 측이 항소하면서 광주고법에 계류 중이다.

정 할머니는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지진 당시의 공포와 폭격기 굉음 소리는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며 “대지진 희생자 추모식 참석에 대해” 이제는 지팡이를 짚어야 움직일 수 있지만, 죽기 전에 그때 억울하게 죽어간 친구들 흔적이라도 찾고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

“경매 투자 고수익·아파트 싸게 분양” 사기범 추가 실형

자신의 혈연과 친분을 이용해 경매 사업 투자 또는 아파트 영가 분양이 가능하다고 속여 거액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가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승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사기 피해자 B씨에게 배상금 1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6월 사이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한다’고 B씨 등 피해자 2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96억9000여만원과 1억3000

“동생이 법원 직원” “구청장 찬스, 분양권 확보” 사기 행각 징역 8년 실형 복역 도중 여죄 드러나 징역1년6개월 추가

여만원의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7월부터 11월 사이 ‘분양가가 아주 저렴해서 2억여원 시세차익을 남길 수 있다’고 속여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친동생이 법원 경매과에 근무하며 경매 알선 업무를 한다’고 B씨 등을 속이며 경매 투자로 원금 보장에 10~20% 수익 지급까지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동생은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아니었다.

분양 투자 사기 과정에는 ‘공원 내에 신축할 아파트 중 10여 채가 내가 잘 아는 구청장에게 할당된다.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선호하는 층으로 1채를 저렴하게 분양받게 해주겠다’는 거짓말도 했다.

A씨는 실제 받아 챙긴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원금·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썼다.

A씨는 이미 2012년부터 각종 사기 전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지난

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나 해당 기소 전 저지른 여죄가 드러나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속여 장기간 경매 사업 투자금,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챘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돈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선고된 사건 판결과 후단 결합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동남아에서 달러 화폐를 찍어내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전재산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투자금 모집책 노릇을 한 공범과 함께 2022년 8월부터 10월 사이 총 10차례에 걸쳐 ‘말레이시아에서 달러를 찍어내는 사업이 있다. 원금의 5배를 보장해주겠

“달러 찍어낼 수 있다” 5억대 횡당 투자사기 50대 실형

다’고 피해자를 속여 5억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말레이시아에 달러를 찍어내는 사업이 있다. 기계를 빌려 찍어내면 합법이다. 나 역시 이미 투자를 했다. 다른 사람들은 원금 3배를 주는데 특별히 투자 원금의 5배를 주겠다’고 거짓말로 속였다.

A씨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약품으로 종이를 닦아내 달러 지폐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실제 현지 제조업자에게 실제 투자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의 상당 액수를 암호화폐(코인) 투자, 개인 카드대금 결제에 썼고 자녀 또는 공범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반면 A씨에 속은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빚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한 달러 제조 과정은 이미 2000년대 중반

부터 문제된 사기 수법이라고 봤다.

실제 앞선 유사 사기에서는 지하 자금을 은닉할 때 화폐를 외관상 아닌 검은 종이로 보이도록 한 것을 특수 약품으로 재처리하면 원래 화폐로 환원시킬 수 있고 큰 차이를 남길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재판장은 “A씨도 직접 투자했다는 사업의 실체는 쉽게 믿기 어려운 것이다. A씨도 달러가 만들어지는 것이 황당해 입국 뒤 환전해본 사실이 있다고 한 것처럼 스스로도 사업 내용에 상당한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